

월간 충현

성장의 달
6
1984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지 않는 법이 없다. 만일 자라지 않는다면 병들었거나 죽은 증거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시작한 교회는 자라고 자라서 지금은 전 세계의 교인 수가 10억이 넘는다.

한국의 기독교도 언더우드, 아펜젤라 등 외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한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었는데 성도의 수가 900만을 육박하는 성장을 이룩했다.

초신자의 신앙에서 신앙의 미성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오래된 신자에게서 어린이의 태도 같은 만년 미성숙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강하고 이해있는 교회로 성장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함이라”(엡 4 : 14)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발전이 불충분하여 주위에 있는 이교의 유혹과 사탄의 관계에 미혹을 받아서 신앙의 동요를 받기 쉬운 어린 아이와 같은 경지를 탈피하여 성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교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새신자가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을 성경대로 양육을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성장의 목표이다.

그런데 요사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자라기 보다는 물질 충만, 명예 충만, 유행 충만... 이런 것만 자꾸 충만해지려는 것 같아 석망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 : 5)

교회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은 교회의 성격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고 교회의 활동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고 교회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를 닮아가는 성상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의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라고 했다.(엡 4 : 13)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급기야 그의 충만한데 까지 이르게 되는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다.

1984/6 차례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2권 제 5 호 통권121호

- | | |
|---|--|
| 2 권두언 / 이 성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 21 주일학교 소개 / 중년부
중년부의 의의와 목표 |
| 4 이달의 말씀 / 김 창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된 성장 | 22 교사수필 / 조 순희
오늘도 최선을 |
| 6 성장의 달 특집
I. 목회자의 영적자질
II. 성장하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
III. 교회성장 세미나의 방향과 목표 | 23 독자수필 / 천 숙영
냉수 한 그릇의 봉사를 |
| 14 병상수기 / 이 정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 24 시 / 이 창업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어 보세 |
| 16 계절학교 개요 말씀을 통한 집중적인
생활훈련을 목표로 | 26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 |
| 18 칼럼 / 이 형수
주님의 주님되심 | 28 교회소식 |
| 19 찬송가 해설 / 최 광덕
내 주여 뜻대로 | 33 교우동정 |
| 20 단상
한 걸음 물러서는 슬기 | 34 7월의 행사 |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데살로니가교회의 모범된 성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 - 10 절

데살로니가교회는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모범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장하여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모범이 된 것입니다.

충현교회도 바로 성장하여 모범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떻게 성장 하였습니까?

1. 우상을 버리므로 성장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살전 1 : 9)

데살로니가교회는 모범교회가 되리만치 성장한 것은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①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높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기술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이 여기는 것이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려면 교만을 버렸습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립시다. 아직까지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을 앞세우는 교만이 있으면 이것을 버려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②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

역하게 됩니다. 돈을 모으려고 약자의 생명을 밟습니다. 돈을 벌자고 신용과 절개를 팔아 먹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③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떠는 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보아 무서워합니다.

"금년에는 동쪽으로 이사를 안간다는데 큰일났네" 이렇게 떠는 사람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별별 떨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별별 떨며 미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교만을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미신이 무서워 별별 떨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2.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므로 성장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살전 1 : 9)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책임에 충성할 때 성장합니다.



참되시다는 말은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요셉은 사람이 보든지 안보든지 충성했습니다. 사람이 안보는데서 충성하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데 충성하여 10년 손해를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므로 모범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충현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므로 성장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살전 1 : 10)

이 세상을 본받으면 10번, 20번 변해서 지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대접을 받는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배우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배우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만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책임에 충성하므로 성장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전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 1 : 10)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 생명이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땀과 눈물을 쏟아 봉사한 데살로니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해도 윗사람의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충성합시다. 사람이 보면 충성하는 척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되는대로 한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눈물, 피, 물질을 쏟으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천 배, 만 배로 갚아 주시는 날이 꼭 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며 일하는 것은 아침이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이해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쏟는 충성으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충현교회와 한국교회는 세계의 모범교회가 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책임에 충성하는 것만이 교회를 모범되게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김창인 목사(당회장)

목회자의 영적 자질

박 윤 선 목사
(합동신학원 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영적자질에 대해 말할 때 목회자가 영적자질을 스스로 타고 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자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다는 미워하고자 하는 죄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회자의 영적 자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라면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생명을 바치며 종사하고 충성하는 분을 일컫는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그 영적자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회자의 영적자질은 소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긴장의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소명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불려서 주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의 일에 사명을 받았다'고 하기 보다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감이라 할 때 종종 우리는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 자신 보다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영적자질을 소유하는 것에 커다란 지장을 줍니다.

영적자질은 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을 때 요한 21:15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하였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틀림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이므로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신령한 목사가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하려고 힘쓰면 결국 영적인 것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등한시 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8)

여기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하였읍니다. 거기에 오묘한 내용이 있고 영적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하여는 쉽게 자극을 받고 행동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자세가 귀중합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참 믿음과 참된 인격의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참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일을

사랑하는 신자. 보이지 않는 일을 사랑하는 목사가 그야말로 안심할 만한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전 1:8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기쁨이 사라지고 식어집니다.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 일! 이것은 생각만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전적(全的)인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크게 결핍한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안한 데서 나지만 신령한 기쁨은 전적인 기쁨이며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기쁨은 오히려 고난의 때에 기뻐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난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내 잘못이 더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그런 경우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주를 위하는 생활처지에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매 맞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는 옹골지게 당하기만 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며 앞이 환해지고 영원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주님께 집착하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목회자의 영적자질은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 집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화를 말할때 인격적 감화는 사람을 사람에게로 이끌지만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대하여 특별히 디모데후서 1:6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역시 교역자에 관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말할 때에 정경(正經)이 있으므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힘쓰고 애써 공평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연구할 때 이 말씀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열릴 때 우리가 맛 보는 영감은 그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쉬운 말도 있고 어려운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말을 깊이 알기 전에는 그 맛을 잘 모릅니다. 쉬운 말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까지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어려운 말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감화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힘써 연구할 때 말씀이 열리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만 성령의 감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자세가 옳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으며 우리 마음에 부정을 품고 강단에서 서면 설교는 안됩니다. 아무리 준비하였어도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죄와 성령의 감화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또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어라고 집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감독하시며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같은 방법

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힘쓰고 애써도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힘쓸 때에 주님께서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설교를 성의있게 하는 목회자라면 경건의 연습으로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기도답게 하며 회개를 회개답게 하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감화는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개념도 아니며 추상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계(靈界)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목회자가 참다운 영적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자신이 먼저 신령한 지도자가 되며 신령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벧전 2:2~5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벧전 2:9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라고 해서 특수층이 아니며 다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한 직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하여 특히 '너희는 신령한 집'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성경에 '너희는 산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지어 놓으면 이것이 '신령한 집'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배당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령한 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었습니다. 그것은 한 건물로서 제사의 성경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의 모든 척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

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당은 기독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바로 신령한 집이 되어야 신령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주장입니다.

이제 더 말씀 드릴 것은 교회발전이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교회는 다름아닌 성경 위주요, 기도 위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교회적으로 사경회를 할 때 먼 곳에서도 찾아오고 다른 교회교인들도 찾아오는 좋은 풍토가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에는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수난을 당한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를 당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수난을 당하면 그로인하여 마음이 굳게 서고 연단을 받게 됨으로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매우 귀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성도들이 수난 당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면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난 날의 신앙의 풍파로 지나고 나서 해방 후에도 이 문제를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밑듯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며 교회는 부패하고 암흑시대가 되어 큰 화를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

(주)이 글은 지난 6월 7일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세계교회 기도 성회 기간 중에 있었던 특강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

정 원 태 목사

오늘날 교회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가 성장해 나가려면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참된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이 지속적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인 교회는 성장하여야 한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교
회가 성경말씀에 합당하게 성장하는 교회인가?

1. 경건한 영적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경건한 영적 지도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교회의 성장은 참된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기
도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엠 바운즈는
말하기를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고 사
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였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방법
이나 수단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나
수단보다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또 바운즈는 말하
기를 “하나님은 기관이나 조직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
으시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였다. 즉 어
떤 교회가 성장되기 위하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님이 기름부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첫번째인 것이
다.

그런데 대개는 방법론에 너무 치중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데는 등한히 하고 있다. 거룩
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어떤

수단과 방법, 사회적 지도력, 인간적인 계획등에는
일차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요소인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면에서
자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거룩한
영적 지도력이 결핍될 때에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하
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
은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준비될 때까지 긴 세월
을 연단시키셨으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
어도 사도 바울이 준비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들은
장로들을 잘 세워야 한다. 거룩한 영적 지도력이 핵
심이 되지 않으면 타락하고 유리하는 집단이 된다.”
고 경계하였다.

2. 예배에 최종점을 두는 교회가 성장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단독사역주의를 믿는다. 단독사역주
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홀로 하신다는 것으로 인
간을 제쳐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거룩하고 전
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
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신다는 뜻이다.

약 3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험한 사막지대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여 그들을 통치한 것은 오직 그의 진정한 예배의 결과였던 것이다.

3.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교회가 성장한다.

① 성경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②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회계획이 있어야 하고, 주일학교의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고, 일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계성과 체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4. 제자를 기르는데 힘쓰는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은 양적(숫자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양적증가와 더불어 성도들을 재무장시키고 계속 훈련하며 철저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제자화 하는데 힘써야 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우리가 남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남에게 자기를 재투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위대한 교수가 있으면 그를 닮은 위대한 교수가 일어나며,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를 닮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일에 역점을 두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

5. 불신사회를 구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회속으로 침투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흔히 교회가 경건성을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화되어가지고 불신자들을 경원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

다. 우리는 사회를 경원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각 계층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은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천국시민화 해야 한다.

성도들이 이 사회를 두려워하거나 미워만하여 도피하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린다. 칼빈주의는 자기의 경건성을 과수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전제내야만 한다.

6.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한다.

수동적인 제자들만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다.

자기 직분의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영적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교인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7.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거나, 어느 한 부서 한 개인이 독주하면 결코 부흥될 수 없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다.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서로 돌아보고 또 위로할 때에 부흥되고 성장 된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다. 성경은 이처럼 언제나 『서로』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에 생겨난 폐단중의 하나가 「무교회주의」라는 폐단이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사람은 모여봤자 부패하기 마련이니 교회에 가보았자 이득이 없으니 우리끼리 성경공부하고 영적교제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개인주의나 무교회주의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성도가 언제나 자기 개인 신앙의 만족이나 신비한 개인적 체험만을 추구하다가 영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만다.

거기서 우리는 한단계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장성했으니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하고 열심으로 일할 때 개인도 은혜를 받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하였다.

다윗의 통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렇게 고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온전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불타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실, 이 가정생활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곳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습관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여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헌신이 없이는 참다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즉 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귀하고 헌신적인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교회적인 헌신도 또한 잘 이루어져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8.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거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거는 인간의 말이다. 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요즘은 매끄럽고 미끈한 설교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비록 매끄럽고 미끈한 설교가 되지 못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성장한다.

9.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무엇을 개혁해 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이 개혁의 의지가 없고 변화를 싫어할 때 그 교회는 멍든 교회가 되고 화석화 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세상 공포는 변한다. 세상의 방법도 변한다. 개혁이란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10. 성령의 개인적 은사를 충동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이 받은 모든 은사들을 충동원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교회이다.

교역자와 장로들 주된 역할은 감독자로서 운동경기에 있어 코치와 같은 역할이다. 코치는 선수들을 발견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뛰게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함께 뛰기도 해야 한다.

유명한 개혁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의 정치를 「은사의 귀족정치」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귀족과 같이 귀하게 쓰는 정치라는 의미이다.

11. 희생과 헌신과 헌금의 정신이 충만한 교회가 성장한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다. 전투를 하는 지상의 교회에서 병사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승리를 위해 자기의 사력을 다해야 하며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내어던져 버리는 일이다.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고지도 점령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

(주) 이 글은 1983년 1월에 있었던 중현교회 단기수련회때의 특강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 4 회

교회성장세미나의 방향과 목표

최 석 주 장로

(기획조정실장)

교회성장 세미나의 필요성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1978년만 해도 400만이 채 안되는 380만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5년정도가 지난 1983년 말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 때가 넘는 860만이 되었다. 이는 세계의 교회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이었다.

이같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총현교회는 1980년 4월 대망하던 새성전 착공과 함께 새성전시대를 위한 새로운 종합적인 목회계획과 교회성장계획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교회성장세미나의 방향과 목표

제 4회 교회성장세미나는 지난 1,2,3회의 연속이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의 세미나를 통한 연구결과들을 교회 5대목표에 맞추어 좀더 구체화하고 실재화하자는 것이다. 즉 교회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후 얼마나 활성화 되었으며 얼마나 주어진 목표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각 기관을 책임 맡은 위원장들이 연구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속적 교회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된 방향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교회성장의 성경적원리와 총현교회 성장방향을 정립하며

둘째, 목회실제에 있어서의 교회 5대 목표의 실현정도를 진단하며

세째, 교회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역

할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교회 5대목표의 수행자로서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질과 지도력의 중요성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세미나의 진행방법은 먼저 3가지의 주제 강연을 통하여 교회성장의 성경적원리와 총현교회의 성장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교회성장의 성경적원리-신성중박사, 총현교회 성장의 지향점-전호진박사, 교회성장과 지도자의 역할-박윤선박사)

그리고 이같은 주제강연에 이어서 예배, 구역, 전도, 교육, 건축등의 실무책임자들이 각 담당 분야별로 교회성장에 있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이 발표내용을 토대로 10개분과로 나뉘어 토의를 하게 되며, 여기서 교역자와 장로 각 개인의 의견들이 종합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세미나의 토의에 참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보다 효과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와 함께 토의할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오늘의 총현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교회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총현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다. 누적된 이같은 문제들이 교회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오늘의 총현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이같은 오늘의 총현의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왜 우리는 오늘의 총현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는 바는 한국교

회가 세계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또한 세계선교를 위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교회들의 요구인 동시에 분명히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곧 오늘의 충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충현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의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와 나아가 세계교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충현교회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구밀집 지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강남의 인구밀집 지역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요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현교회의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앞에 가로놓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2. 오늘의 충현 - 무엇이 과제인가?

오늘의 충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초기에 비해 충현교회의 성장 속도는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1980년 이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의 전체 평균 성장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근본적으로 교회성장의 둔화가 교회의 영적침체와 활력의 감소에서 오는 것이라면 교회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연구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의 폭을 좁혀 첫째, 교회지도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문제와 둘째, 교회 5대목표를 위한 각 기관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교회의 목표와 각 기관의 목표(사명)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기관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 기관의 목표 설정과 목표의 실행은 그 기관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력에 크게 좌우된다. 즉 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지

도력이 교회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3. 내일의 충현교회상

이제 끝으로 교회 5대목표의 성취를 통한 내일의 충현교회상을 생각해본다.

첫째,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바로 지키며 믿는 바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세계선교에 앞장 서며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에 힘쓰며 특히 민족복음화를 위해 사회 각층에 깊이 파고들어 복음을 침투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일꾼을 키우는 교회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을 키울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넷째, 봉사와 교제에 힘쓰는 교회

믿는 형제들끼리 먼저 사랑과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땅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며 교육, 의료, 사회봉사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취이며 소금처럼 녹아져 희생,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결 론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성장이 정지된 교회는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충현교회가 교회로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한 바운즈의 말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성장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제 4회 교회성장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여 충현교회 성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이 글은 지난 6월 28일~30일에 본교회당에서 있었던 제 4회 교회성장세미나에서 최석주 장로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이 정 애 집사

지금 제게는 감사이외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더큰 소망도 바램도 없이 그저 날마다 감사할뿐입니다.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고통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평안이 너무도 크게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제 큰 아이의 결혼식에 가본 후 해가 바뀌어도 못가 본 사랑하는 충현교회 제 인생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 교회 날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은 그곳을 너무도 오래 못가봤습니다. 특별히 아픈일 이외에는 빠지지 않았던 성전에 이렇게 오래 못가본 일이 처음엔 못견디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찌그러진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 할찌라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리라는 나의 소망과는 달리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81년 여름부터 제 병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73년, 77년 진단 결과 간암이라 진단이 내려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어 다른 병으로 진전시키신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형선고를 받은 저에게 이사이야 40장을 통해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어 이 날까지 살았습니다. 여전도회, 수도여전도회, 장년부, 노년부 수양회 찬송 인도를 맡은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금년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81년도 여름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간은 점점 커져서 오른쪽 배꼽 윗부분을 다 차지하도록 커졌습니다. 12월 8일 여전도회 82년도 결산과 예산 준비 임원회를 마치고 그날로 입원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한채 10일만에 간혈

관종이란 병명을 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외과의사 선생님의 간곡한 수술권유도 뿌리친 채 한 알의 약도 쓰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82년 3월에 하복부에 통증이 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외과 선생님의 말씀에 고통을 무릎쓰고 대기실에 누워서 기다렸으나 병실이 없으니 집에 갔다가 연락하면 오라고 해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의사들도 모르는 나의 병은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수술않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은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82년 9월, 마달긴 쇼크에 혈압이 60~40으로 내려가고 두드러기가 나고 했으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열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큰 사랑을 주님께 받음을 성도들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뭇대 연세높은 분들을 비롯해서 뜻밖에 분들의 병문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지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가 있는 큰 아이가 와서 제 손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수술 하라고 간절히 권유했으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수 있다고 저는 거절 했습니다.



이번엔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수술하지 마세요 하고 부탁하고는 밤이 늦었는데도 병실에 세 아들과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고 제 육성을 녹음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긴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후 새벽에 다시 근무지 전주에 수병원으로 떠나갔습니다.

열이 내리니 퇴원하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10월 9일 부천으로 이사오면서 외지로 귀향가는 사람처럼 울면서 왔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와서 교회도 멀고 하는 생각에 더 더욱 섭섭했습니다. 감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마음만 상했습니다.

11월23일 밤부터 다시 온 통증으로 저를보는 사람마다 이 겨울을 날 것인가 하는 생각과 젊음이 아깝다하는 사람들의 동정과 11월31일과 12월 1일 밤 맥박이 뛰는 것과 동시에 오는 통증으로 호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는 찬송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30분 자고 깬 그 잠이 너무 감사해서 제 입에선 주여 감사합니다. 또 30분 또 30분 수없이 깨면서 잔 잠이지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차도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차도가 있다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 좀 덜할뿐이지 나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2월14일 큰아들 결혼식에 전날 사온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많은 반가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들 그리웠던 성전은 이전 그대로였지만 저만 힘이 없고, 뛰어다니며 일하던 지난 날은 한낱물 거품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보고서 밖에 아무 것도 없음을 더더욱 마음 아

파하는 제 마음 하나님만이 아실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해가 바뀌어도 본교회에 가보지 못하면서 성찬식에는 꼭 참석하리라 마음 먹었으나 1월20일 밤부터 다시 고통은 오기 시작해서 3일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은 날로 쇠해가지만 마음은 날로 주님 앞에 설 준비에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이길 힘이 없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을 좌우하시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호호할 때마다, 맥박이 뛸 적마다 오는 통증, 기운이 진해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던이 모든 것이 나로 감사하게 하시는 계기요, 원동력이 되어 범사에 감사할 뿐이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병자를 위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전처럼 뛰어다니면서 앞장서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감사할뿐이며 내 생각은 지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 이 글은 '84년 6월 6일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필자가 생전에 진히 쓴 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는 찬송이 밤에
잠을 잘수 있는 축복이 된것이 너무도 감사
했습니다. 10월 9일 부천으로 이사오면서
외지로 귀향가는 사람처럼 울면서 왔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와서 교회도 멀고 하는 생각에 더
더욱 섭섭했습니다. 감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마음만 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집중적인 생활훈련을 목표로

정 관 호 강도사
(교육위원회 주교교육 담당교역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계절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그 기간을 짧게는 2일, 길게는 5~6일 정도로 잡아 개교회 형편에 따라 산이나 바닷가로, 혹은 수양관이나 기도원등으로 나가서 개최한다. 물론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재정형편이 충당되지 못하는 이유로 교회내에서 개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 계절학교는 그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이 일반적인 주일행사보다 그 규모와 재정 충당면에서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요구하므로 담당 교역자와 실무진들은 그 계획부터 많은 고민과 심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계절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의 수업과 과제의 무거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계절학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충일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감도 안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금년 여름행사인 계절학교가 보다 더 효율적이 되며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예년에 진행되었던 계절학교와 비교·분석·평가한 후 그 준비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행사방침과 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계절학교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계절학교가 전통적으로 <여름성경학교> 또는 <여름수양회>등으로 불리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계절학교가 궁극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표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삶의 터전과 현장 속에서 말씀을 생활화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절학교는 단순히 쉼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실습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절학교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성원인 각자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교회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으며, 어떻게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말씀과 상담을 통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삶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그 해설을 보게하며, 그 일정한 규칙과 공동체적인 생

할 가운데서 지성과 덕성과 체력도 함양시키는 면도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계절학교-준비와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충청교회의 여름 계절학교의 경우 금년에 새로 신설된 중년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가 최소한 6회 이상의 계절학교를 치른 경험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본교회 역사와 동일한 31회째를 맞고 있으나 그동안 쌓은 경험이란 이제는 노련한 숙련공과 같다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교 실시 후 시행되는 평가회 기록을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이런 시행착오와 단점을 없애는 무결점(zero defect)에 도전하는 계절학교가 되도록 준비과정부터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월-북 발행(계절학교 안내 팸플렛 발간)

계절학교의 준비는 월-북(work-book)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월-북 가운데는 주제와 주제찬송, 주 강사와 특강 강사, 회비등이 수양회개 요란에 기재되어야 하며, 준비 및 진행위원등의 조직과 예배담당 및 행사등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월-북을 발간하기 위해서 조속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준비위원회에 따라 진행 위원도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월-북을 통해 계획·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홍보활동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 월-북을 계절학교가 시작되기 전 적어도 2~3주내에 발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행장소의 시설확인 및 준비물 사전 점검

금년도 충청교회 주일학교가 계절학교의 시행장소로 사용하게 될 곳은 새로 이전한 교회당과 충현기도원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처음으로 새로 이전한 교회당에서 실시하는 부서들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 구성과 환경미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실시된 충현교회기도원의 경우에도 그곳 시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대충 지난해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가 커다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위원 교사들 중 장소답사를 면밀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시청각 교재, 명찰, 출석부, 마이크등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당일에 서두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③ 진행할 교사·임원 및 그룹 리더들에 대한교육 계절학교의 전반적인 개요와 진행 담당자들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교사회를 열어 그 담당자와 진행자가 누구인지 전체 교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계절학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들을 교육시킬 과목과 일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진행할 교사·임원들 및 성경공부 인도자들을 미리 훈련시키므로 그들을 통해 예배와 행사와 성경공부가 일관성있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특히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재확인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④ 예산의 집행

계절학교 평가때마다 들고 나오는 문제점 가운데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계절학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행사실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는 일 외에도 추가로 재정을 보조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되는 경우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어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데에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과 간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의 분배, 참가예정인 학생들에게 회비의 거출, 준비, 진행, 평가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예산의 절감등을 통해서 할 수만 있는대로 주어진 예산 가운데서 진행하도록 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번 계절학교 실시에 따른 목표와 준비 및 진행사항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았다.

충천교회 주일학교 16부서중 13개 부서(새신자부, 새래부, 새가정부 제외)에서 실시될 계절학교를 앞두고 바라는 소원과 기대는 금번 계절학교는 명실공히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르게 하는 집중적인 생활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부서의 계절학교가 다 마친 후에는 참가학생은 물론 교사들까지도 「이번 계절학교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으며, 나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흘러 넘쳐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바이다. (*)

주님의 주님되심

이 형 수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여러 면에서 나타내고 있다. 가족과의 혈연적 관계라는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가르치고 배운다는 면에서 '선생과 제자'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면에서 '목자와 양'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우리와 긴밀하며 매우 중요한 관계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관계이다. 성경 도처에서 주님의 주님되심을 말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고 쓰여진 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되심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매일을 기도와 언어에서도 늘 이야기되고 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 섭리하신다. 죽은 자와 산 자,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가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 또한 우리를 그의 피값을 주고 사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처럼 의심할 나위없는 주님의 주님되심을 과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에 주인인가 하는 것이다. 주인이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

람, 즉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속한 지회, 내가 속한 교회의 모든 일들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소득을 사용하는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면에서, 자녀의 진학을 결정하고, 각자의 장래 문제를 생각하고, 결혼·친구·교육 등 모든 우리의 일상사에서 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제직들을 세우는 일까지 모든 면에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결정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계신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주님으로 삼기지 않는 신앙태도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자신이 상황에 따라 주인이 되곤 하는 것이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로, 일상사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에서는 마땅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23에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깊이 생각해 할 문제이다.

오늘날 부흥과 성장에 관해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상사의 세밀하고 넓은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는 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각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직도 없을 것이다.

“내 주여 뜻대로”

- 431장 -

최 광 덕

(제 1부 성가대 지휘자)

내 주여 뜻대로 행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의 가사는 막14:36인 “아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서 기초되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시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문이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성립되기까지의 애절한 일화가 있다. 찬송가 작가로 널리 알려진 작사자 벤자민 슈몰크(B. Shumolek) 목사가 어느날 부인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나서 새까맣게 타 버린 것이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미처 나오지 못해 불에 타 죽어 있었다. 벤자민 목사 부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 후에 애끓는 절규의 내용을 시에 옮겨 놓은 것이다.

벤자민 목사는 참으로 실질적인 설교자였다. 그의 헌신적인 자세와 근면한 목회자로서 분별력이 있고 많은 재능-신앙적인 저서와 그 안에 실력있는 찬송 시에 기원-을 지닌 사실은 정평이 나있다. 그가 쓴 찬송시만 해도 900편이 넘는다고 한다.

한편 이 찬송의 작곡가는 칼 마리아 베버(1880~1826)인데 그는 위베르 근교의 독일태생으로 부친이 순회 가극단의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

터 음악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14세 때에 오페라(가극)를 작곡하기도 했으며 19세 때에는 브레슬라우 사립 가극장의 지휘자가 되었다. 또한 드레스덴 가극장의 가극악장으로 있을 시절에 3대 오페라 ‘마탄의 사수’, ‘오이리 안테’, ‘오베론’을 작곡하고 ‘무도회의 권유’의 명작을 남겼다.

그의 작품중 마탄의 사수는 3막의 오페라이다. 그중 서곡은 다섯 손가락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숲속의 신비를 나타내는 유니슨으로 시작되며 이 서곡의 주제는 4개의 호른이 종교적인 가락을 노래하게 된다. 이 멜로디를 1882년 조셉 피 홀브룩(J. P. Holbrook)이 찬송가 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마탄의 사수의 아름다운 주제음악과 벤자민 목사의 하나님께 맡기는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는지 모르겠다.

이 찬송의 유래를 상세히 알게 되기까지 나 자신에게는 성령충만했던 그날이 있었음을 부끄러이 밝힌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때 어머니께서 “주님께 맡겨라”고 권고해 주셨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느 기도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다. 4일째 되던 목요일 밤에 수침에 가득찬 나에게 기쁨이 솟구치며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이 불러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주님께 맡겨라”하신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났다.

나 자신을 변화케 한 1971년 여름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송을 즐겨 부른다. (*)

한 걸음 물러서는 슬기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초기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분께 쏠리게 되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진리 전파, 질병의 치료를 포함한 실제적 봉사활동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추종자를 얻게 했다. 그분의 전도 장소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이른바 대중의 인기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유대 나라에 큰 인물로 인정받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소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분이 오기 전에 민족적 부흥과 개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는 일종의 유세를 대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덕성과 인격과 웅변술에 놀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해하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유대 민족을 구원할 줄로 믿고 그에게 물려들었다. 그는 대중을 상대로 무엇인가 할만한 기쁨이 놓여졌다.

그런 상황 아래 새로운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세례 요한에게로 집중되었던 인기가 서서히 새 인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인간적 관점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시련이었다. 어느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였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고 사람들에게서 개해준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인기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은 독특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30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 위치를 알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사람임을 알았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그가 취할 태도 이고 한 걸음 앞서는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접임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좁게는 가정 안에서 범위를 넓힘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한 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임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앞서는 것, 심지어 누구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위치인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활의 슬기는 하나님의 관제에서는 더욱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호와 취향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과 주종관계(主從關係)에 놓일 때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

중년부의 의의와 목표

본교회의 주일학교 체제 중에서 금년에는 소년부·중년부 그리고 세례부가 신설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중년부 주일학교의 신설이다.

중년부 주일학교는 31세~45세까지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35세까지는 청년부 35세 이상은 무조건(?) 장년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각부원들 간에 세대차이 마저 느끼게 하던 것을 해소시키고 보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모이는 시간은 매 주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이며 장소는 교육관 407호이다.

오늘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할 인물들이 바로 중년부 회원들이라고 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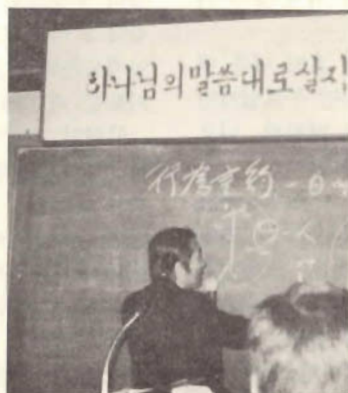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 성경의 귀한 진리를 연구하고
-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며
- 중년들의 귀중한 힘과 실력을 갖고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실력향상 방안을 연구하여
-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의 귀중한 역군을 양성 훈련하는데 전력하게 될 것이다.

1. 중년부 주일학교 왜 중요한가?

1) 중년의 귀중한 시기를 알차게 활용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이 넘으면 비로소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독립된 생활의 안정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한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가로서 또는 가정주 부로



서의 발판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신앙적으로도 그동안 배우고 읽힌 말씀의 실력과 다져진 믿음을 주로 위해 힘있게 봉사충성할 가장 황금시기라 하겠다.

이 귀중한 시기에 같은 연배의 중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배우고 신앙인의 생활문제를 연구 토론하고 이것을 교회와 사회 속에 적용 봉사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꽃피울 가장 귀중

한 모임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일꾼양성의 기관이다.

중년 주일학교로서 훈련 받은 성도가 교사, 집사, 권사, 장로가 될 것이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실력자로 교육하게 될 것이다.

3) 계속교육의 현장이다.

교사, 성가대원, 권찰, 집사가 된 후에도 말씀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겸손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2. 교육목표: 실력있는 천국 일꾼양성

- 1) 철저한 성경교육으로 말씀의 실력양성
- 2) 말씀의 생활적용 훈련
- 3) 실력있는 천국일꾼으로 봉사

4) 전도의 실력자로 양성

3. 교육방법

- 1) 지도목사의 성경강의
- 2) Group 지도자(교사)와 함께 말씀토론
- 3) 생활 현장에서의 적용훈련
- 4) 지도교역자와의 목회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4. 1984년 중년부 조직

지도: 김창근 목사, 부지도: 헌정남 전도사, 부장: 윤광일 장로
부감: 이하영 집사, 공향조 권사
교사: 18명

5. 결언

우리의 젊음, 힘,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충성하는 천국일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보람있는 인생을 위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광장이 되길 바란다.

이 시대를 바로 지금 이끌고 가야 할 임무가 우리 중년층 앞에 놓여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도 최선을

조 순 희

〈초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의 티없이 맑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 나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어린이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와 해맑은 모습들이 떠오른다. 그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얌전한 어린이도 있었고, 어떤 어린이는 주일날 교회에 안나오고 집에서 마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집에 까지 쫓아 가야 했다.

때로는 다락에 숨어버리고 만나와서 혼자 나올 때에는 낙심 될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안 믿는 불신가정에서 어린동생을 데리고 열심히 나오는 어린이도 있어 보람있는 때도 있었다.

내가 맡았던 어린이들중에 민호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조금 지능이 낮고 언어 장애가 있었다. 취학할 나이가 되자 특수 교육기관에서 얼마간 교육을 받다가 부모님께서 우리교회에 데리고 나오셨다. 그후 그의 남동생과 같이 꾸준히 다녔는데 어느정도 말은 잘 알아 들었지만 의사표현이 부족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예배시간에는 가끔 눕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서 항상 옆에 붙어서 타이르며 보살피 주어야 했다. 또 성경공부 시간에는 단짓을 하거나 비웃는 친구들과 곧잘 다투어 성경공부가 지연될 때도 있었고 신발을 잃어버려 민호를 업고 올라와서 신발을 찾으러 돌아다닌 적도 몇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한번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나오던 민호가 어느날 눈에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내심 걱정을 하며 입구만 바라보는 나에게 한 동네에 사는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민호가 성냥갑 갖고 혼자서 장난 놀다가 휘발유가스에 불이 붙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하고 전하였다. 나는 감

짝놀라서 그 애와 함께 민호네 집으로 심방을 갔다.

선생님이 온 것을 알고 민호는 쿵쾅거리며 금새 뛰어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 눈만 빼놓고 머리, 이마 할것없이 봉대로 칭칭 감고 있었다. "어찌다 이렇게 되었니?"하고 안타까이 묻자 "불"하면서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나의 손을 붙잡아 끌고 소파에 앉히더니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토마도쥬스를 갖다가 먹으라고 권하였다. 부모님은 교회에 가시고 안계셨는데 민호와 그의 형제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이런일 저런일 겪으며 민호와 만났지 어느덧 일년이 지나 작별의 시간이 왔다.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민호를 다른 반으로 보내야만 했다. 민호와 헤어지던 성탄절 주일에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싱글벙글 웃더니 예쁜 편타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는 은박의 카드와 향내나는 양초 두 자루를 건네 주었다.

카드에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정성이 깃들인 글씨가 써 있었다. 나는 눈물어린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그래, 선생님도 정말 고맙다"하고 민호의 손을 꼬옥 잡아 주었다.

그동안 민호와 어린생명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재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보람있는 직분이라고 깨달았다.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며 위대한 교사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충성해야겠다.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최선을!

냉수 한 그릇의 봉사를

천 숙 영
(청년부 회원)

녹음이 짙어가는 남산 고개의 상큼한 풀 냄새를 맡으며 걷다보니 어느새 50명의 고아들의 보금자리인 혜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에서는 한창 보모 선생님과 아이들이 겨우내 입었던 옷가지를 세탁하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널려진 옷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엄동설한의 냉혹했던 작년 겨울을 회상하게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 보자는 의견에 함께 만장 일치로 결의한 봉사자(선생님)들은 일일 찻집식의 자선의 밥을 열기로 했다.

우선 장소가 마땅치 않던 터에 구로공단내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우리들의 의도를 말씀드렸더니 쾌히 승낙해 주셔서 곧 해결되었다.

우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1회의 공연을 가졌었다. 그때 여러분의 도움으로 캐롤송과 아이들의 무용, 피아노 독주 등등의 다채로운 계획을 준비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티켓판매였다.

온누리에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을 올렸으나 밤새 뿌려진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지각사태가 벌어졌다. 진행 맡은 분들의 순서가 엇갈리는 시행착오를 빚게 되었다.

피아노 독주를 맡았던 친구가 시간이 늦어 택시 잡았더니 요금을 두 배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기로 하고 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바람에 교통위반으로 걸렸단다. 기사 아저씨가 친구를 보고 아픈 척하라고 해서 그러했다가 경찰관이 택시 앞에 서자마자 임산부라고 말하고 일찍 왔노라고 했다.

여러모로 미숙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십이만원이나 되는 수익금을 남겼고 아이들에게 겹 옷을 한벌씩 선물했었다.

시간은 흘러서 이미 오랜 기억 속에 묻혀있었으나 혜심원에 널려진 옷을 보며 새롭게 되살아났다.

우리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등반(성경공부)한 후에 돌아온다. 한 주간중의 작은 시간이지만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처음에 이들을 볼 때는 값싼 동정심을 유발시켰지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개구장이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 책 소개 □

현대교회와 성령운동

손봉호 · 이종윤 · 박윤선
김명혁 · 홍정길 · 옥한흠
국판 · 156면 · 2,000원
정음출판사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계에 밀어닥친 가장 큰 충격파는 오순절 성령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성령운동이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제 5회 강남지역 연합 신앙강좌에서 이 성령운동을 성경에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령운동도 이제

는 신학적으로나 목회학적으로 좀더 성숙된 차원에서 그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김명혁, 박윤선, 손봉호, 옥한흠, 이종윤, 홍정길 강사의 강연을 엮은 책이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어 보세

이 창업 장로 (충현동산 관리위원장)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신
사랑하던 가족을,
땅에서는 다시 만날 길 없어
메이는 가슴, 흐르는 눈물...
그 유해 고이 모시고자 이 동산을
찾았네,
산 기슭 좁은 길 오르고 내리는데
차 바퀴 비탈로 기울어
상한 가슴 다시 한번 조이다 안도의
숨을 돌렸네.

앞서 가신 님 그리워 이동산을 찾는 발걸음들,
마음도 몸도 무겁기만 한데
어여쁜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 주었으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 주었으면...
푸른 잔디 위에서 잠시 쉬어 가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고전15:42~44)을
품은 채,
주님 안에 고이 잠드신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의
유해를 모신 충현동산

우리도 이 세상 수고 그치고
오라 하시는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 어느 순간에라도 지체 없이 순종하여
영혼은 주님 계신 나라로,
육신은 충현동산으로(전12:7)
각각 처소를 정하게 되리

이 동산을 오르는 길이 편하게,
많은 차들이 지나기에
장애 없도록, 좁은 길 넓히고
가파른 곳 메우세,

백지장 맞잡듯이 우리 힘 모두어
정성들여 가꾸면
길이길이 아름다운 우리의
충현동산이 되리.



1984년 주교 계절학교 (여름) 실시계획

충현교회 교육위원회

구분	부	영 아 부	유 치 부	유 년 부	초 등 부	소 년 부	중 등 부	고 등 부	대 학 부	청 년 부	중 년 부	장 년 부	소 망 부	직 장 부
회 수	18	31	31	31	31	22	22	15	14	1	7	9	7	
주 제	사랑은 내마음대 로 하지 아니하며	즐거운 교회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	즐거운 교회생활	모든일에 유익한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일을 행하자	더욱큰 은사를 사모하자	철년의 새월을 아끼자	실력있는 천국일꾼 되자	말씀을 통해 새로워 지자	인생의 본문을 바로알자	성경을 바로알자	
주제성구	고 전 13:3	고전 10:24	골 3:15	고전 1:18	엡 2:19-20	딤후 3:14-17	엡 2:10	고전 12:31	엡 5:15-17	딤후 3:14	고후 5:17	전 12:13	딤후 3:15-17	
주제찬송	사랑은 사랑은	교회의 주인	496	245	241	393	178	231	511	493	376	376	234	
기 간	1984년 8/14~15	7/23~25	7/23~26	7/23~26	7/23~26	7/28~8/2	7/23~27	7/9~13	7/16~19	8/15~16	8/17~18	8/13~14	8/2~4	
장 소	교 회 선 103	교 회 교 205	교 회 교 212	교 회 교 314	교 회 교 307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충 현 기도원	
외래강사						정삼지	한세호	김준식						
내부강사	정복인 정소영	정연희	김창인	김창인	김창인	이원길	안석렬	윤태곤	김수철	김창근	한영철	조영길	이원길	

원 고 모 집

월간충현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앙월간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체험이 담긴 성도들의 원고를 통해 월간충현을 더욱 알찬 신앙지침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소속, 성명, 나이 등 간단한 약력을 함께 보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실곳 : 충현교회 월간충현 담당자앞
- 내용및매수 : 내용은 자유이며 8매 이상
-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 서만수 선교사, 선교업무 협의차 일시 귀국, 6월16일 출국 하심.
- 〈기도제목〉
-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사역에 주님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옵시길
- 선교사 내외분의 건강과 따님의 가정을 위하여.

애굽 (이준교 선교사)

- 4월27일 대림산업 카이로 공사현장 직원, 기능공 18명과 5월14일 카이로 한국부인회원의 카이로 유적지를 답사, 안내함
- 5월21일 자이툰교회 담임 부슈라 아스아드 목사와 청소년 훈련센터 및 의료선교사업 추진에 대하여 논의함.
- 5월21일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를 방문, 교장대리 라오프와 호바 박사에게 신학생 의료 장학금 200파운드와 졸업생 시상 보조금 50파운드를 전달함.
- 〈기도제목〉
- 4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도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카이로 한인교회와 현장예배 및

포트사이드 가정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애굽인의 복음화를 위하여.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주일 예배에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모여 예배 드리고 있음 (60명 정도).
- 화요성경공부 은혜중 계속진행
- 구역예배를 시작함.
- 가정에서의 성경연구를 위한 성경통신이 활발함.
- 개인생활만을 중시하여 심방을 생각조차 않던 성도들이 변하여 심방요청과 기도청원이 쇄도하고 있음.
- 〈기도제목〉
- 더 넓은 새 예배처소를 얻도록
- 준비중인 외향선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 여선교회가 조직되도록
- 안수집사 세우는 일을 위해

서독 (육호기 선교사)

- 〈기도제목〉
- 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브룩, 세 한인교회를 위해
- 선교사 영육간의 경건함과 가족을 위해

칠레 (유재일 선교사)

-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극빈자용 신분 증명서를 발행함으로 인해 극빈자들이 성경공부후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 5월4일 방 16개로 선교부 사무실과 개인기도실, 식당예배실 등 사용이 가능한 선교부 건물을 월 \$150로 임대하고 찐디야고 장로교회 예배실을 수리함
- 5월14일 칠레 주재 장로교 선교부 법인인가를 법원에 제출함.
- 〈기도제목〉
-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 법원에 제출한 선교부 법인인가 처리를 위해
- 선교사의 더 폭넓은 사역을 위해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교회의 부흥과 원주민 선교사역에 풍성한 은혜 주옵시길
-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5월 6일 주일 예배시 마쓰다 자매의 남편이 회심을 간증함
- 5월 7일 임원중 결신한 일본인 자매를 일본인 목사에게 인도함
(기도제목)
- 유병세 선교사와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 선교사의 병원사역과 선교사역을 위하여
- 섬기시는 일본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인도 (엘리야 겔간 선교사)

- (기도제목)
- 인도의 원주민 사역을 위해
 - 퓨리그어 신약성경 번역사업을 위해
 - 엘리야 겔간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라성총현교회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라성총현교회가 계속 부흥하여 170명의 성도(어린이 포함 200명)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음
- 4월24일부터 대심방을 실시함
- 한글학교 개설
-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면려회를 조직, 남·여 전도회를 조직
- 매월 1회씩 산상기도회, 매월 1회 구역예배를 실시
(기도제목)
- 정상우 목사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라성총현교회의 부흥을 위해

털사총현교회

- 미국 중부를 엄습한 큰 폭우로 털사에서만 1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털사총현교회와 성도들 가정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음
(기도제목)
- 강성진 목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털사총현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홍콩총현교회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렐 선교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 오치용 목사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음
- 성령강림주일 예배는 39명의 성도들이 모여 드림
(기도제목)
- 오치용 목사의 출국수속이 속히 끝나 속히 홍콩 총현교회에 부임하시도록
- 홍콩총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도록

본부소식

- 5월19일 인도네시아, 벨기에, 라성총현교회, 털사총현교회 및 각 선교지의 보고사진 및 소식을 전시하였으며, 각 선교지 업무추진과 관계 자료를 작성
- 5월16일~6월2일까지 선교지공문, 앨범, 팸플렛, 도서분류 및 정리, 선교지 풍물등을 전시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소준비 작업을 함

- 6월5일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일시귀국, 6월13일 선교사 모친 추도식에 유국남 목사 한경일 장로 참석함, 6월16일 홍콩을 경유, 현지로 귀임.
- 현재 오치용 목사, 비자수속과 가족여권을 신청중이며 7월말경 출국예정.
- 6월13일 김주경전도사 강도사 고시에 합격, 6월26일 목사안수를 받은 후 6월27일(수) 파송예배를 드림.
- 6월10일~13일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일본, 애굽, 홍콩 등 세계교회 기도성회 참석진이 교회를 방문하여 본 선교회에서 통역 및 안내를 함
- 6월10일(주일) 세계교회 기도성회에 참석한 에드 윈 오르 Dr. J. Edwin Orr, 미국 플러신 학교 선교학교수)가 4부예배 설교를 담당, 저녁예배에는 피터 바이엘하우스(Dr. Peter Beyerhaus, 독일 튀빙겐 대학(선교학교수)가 설교를 담당함
- 6월11일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EFA) 사무총장 잔 리차드(D. J. Richard) 목사 내방, 총재 김창인목사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해 대담함.



교회 소식



제 4 회 교회성장 세미나 개최

새 성전시대에 접한 성장발전 모색

“충현교회 성장과 교회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교역자, 장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교회성장 세미나가 본당 103호실과 선교관 각 토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준비기도회, 주제강연, 연구발표, 분과토의 순으로 일괄된 이번 교회성장세미나는 전 호진 교수, 신 성종목사, 박 운전목사의 주제강연과 구역운영에전도, 교육예배, 건축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결과는 통해서 새성전시대에 접한 충현교회의 성장방향이 모색되어지리라 기대된다. 보다 나은 질적 성장과 활기찬 양적 성장을 이루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 교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교사재훈련반, 임시교사 훈련반 제 1 기 수료식 거행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목) 오후 8:00에 교사재훈련반과 임시교사훈련반의 수료식을 교육관 212호 205호에서 각각 거행하였다. 임시교사로 봉사한지 만 2년이상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함께 드린 예배는 최 성현 장로 사회, 김 수성 목사의 설교(교사의 길: 요한 13: 12-16)가 있었으며 학사보고 후 김 창인 목사의 수료증 수여가 있었다. 각반의 수료자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교사재훈련반: 수료자 67명 (모범상 10명, 장려상 12명 △임시교사훈련반: 수료자 15명(장려상 7명)

군목초청세미나 은혜중에 마쳐

전도위원회는 지난 5월28(월) ~30(수)에 충현기도원에서 군목 업무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군목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황금어장인군복음화를 위한 것으로서의 군목의 사명감 고취와 자질향상,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총00명의 목사님과 사모들이 참석하여 군전도의 방향모색과 아울러 경건의 시간, 모의올림픽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중에 진행하였는데 주요강사 및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군선교의 사명감: 신 성종목사 △군선교의 전도자세: 박 동실목사 △군선교의 운영 및 관리: 이 성근목사 △민족복음화와군선교: 이 양우목사 △성숙한 가정: 윤 영탁목사 △상당자로서의 사모: 김 연이전도사 △동역자로서의 사모: 구 명진전도사 △부흥회: 김 창인목사.



제 2 기 전도요원훈련 수료식

전도위원회는 제 2 기 70인 전도요원훈련을 마치고 7월 8일주 일 저녁예배시에 수료식을 가진다. 이번의 수료예정인 인원은 62명이다.

주교 13개부서 계절학교 시작

주일학교 계절학교가 대학부를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성전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13개부서 계절학교에 참석 인원을 4,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 주교별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계절학교는 새성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과, 중년부가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계절학교를 실시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계절학교의 실시계획은 25 페이지의 도표 참조)

구역권찰회

제 2 차 구역 지도자 교육 실시

구역권찰회에서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라는 표어 아래 7월 6일~7일 양일간에 걸쳐 본교회당에서 제 2 차 구역지도자교육을 가졌다. 지역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번 교육은 지난 1월 9일~10일 1차교육에 이어 올해의 교회구역성장 목표인 1만세대 1,500 구역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김 창인목사와 장 정

일목사가 수고하였으며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구역장의 사명과 상급
- 2) 효과적인 구역운영
- 3) 효과적인 구역예배
- 4) 효과적인 구역 심방
- 5) 효과적인 구역전도 등이 다.

교구별 야외예배 은혜중에 진행

구역권찰회는 성도의 교제와 단합을 위해 6월중에 각 교구별로 야외예배를 실시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보내었다. (교구별 실시결과 참조)

예배위원회

성례식을 은혜중에 마침

올해의 세번째 성례식이 지난 6월 21일~22일에는 본교회에서 성찬예식으로 거행되었다.

이번 성례식에서 학습 66명, 유아세례 47명, 세례 49명이 수세를 받았다.

헌신예배

지난 5월 27일(주일) 저녁예배시에는 각부 주일학교에서 교사연합 헌신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신 성종목사의 설교와 교사연합 찬양대의 특송이 있었다.

6월 24일 주일 저녁예배시에는 제 1부 성가대를 중심으로 각부 성가대원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강사는 신 성종목사(설교: 민족이 사는 길) 특별순서에 예혼성 4중창과 김 윤경선생(여성성가대 반주)의 오르간 독주 그리고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 교구별 야외예배 실시 결과 □

교 구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1	6. 18	태능북한선교원	300명
2	6. 25	충 현 기 도 원	200명
3	6. 26	태능북한선교원	250명
4	6. 15	남 이 섬	170명
5	6. 15	서 오 능	170명
6	6. 19	천 마 산 기 도 원	260명
7	6. 14	태 능 푸 른 동 산	280명
8	6. 14	미 설 시	200명
9	6. 16	충 현 기 도 원	200명
10	6. 12	중 묘	270명
계			2,300명



주일학교 동정

대학생 초청 전도집회

지난 5월28일~29일 이틀동안 대학부에서는 제1회 대학생 초청집회를 실시하였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주제하에 새신자 61명을 비롯하여 연인원 251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는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경청하였다. 강사는 신성종목사(총회신학대학원 교수, 본교회 협동목사) 강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것(첫째날)과 꼭 해야 할 것(둘째날)이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다과를 나누며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는 교제의 시간도 있었다.

작은 음악회

지난 6월23일(토) 오후 4시 30분에 중등부 주최로 "작은 음악회"가 본관 102호실에서 열렸다. 이것은 먼려회 자체적인 활동중의 하나로 먼려회원 20여명 찬조 5명이 출연하여 중창 독창 기악 연주(피아노, 하아프, 플루트, 바이올린등의 아름다운 멜로디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임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부모, 타교회 학생들을 비롯 150명으로 시종 호뜻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등부 전도훈련 실시

중등부에서는 6월16일~17일 양일간 교육관 4층 중등부실에서 전도요원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실제적인 전도훈련을 위한

것이였다. 또한 17일 주일에는교사와 학생들이 훈련받은 대로 사영리교재를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일제히 전도를 나갔다.

본 훈련을 위한 강사로는 C. C. C의 김 동환간사가 수고 하였고 연 참석인원은 교사 47명 학생 420명이였다.

어린이 초청잔치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세 부서는 6월7일(목)~9일

(토)사이에서 본 교회당에서 어린이 초청잔치를 열었다.

주강사는 김 동열목사(초등부지도) 외 부강사는 김 연자 집사(안암동교회)의 구연동화와 변규정전도사(이태원 대성교회) 신앙간증시간이 있었다.

연인원 참석인원은 교사 150명 어린이 1,932명이였다. 처음 나온 어린이는 230명이였다.

의료전도단 충북 단양에서 진료

본교회 의료전도단(단장:홍중섭장로)은 지난 6월17일(수)에 충북 단양군 가곡면 예천1리에 있는 여천교회(제3남전도회 지교회)를 방문하여 165명의 환자를 무료 진료하며 전도하였다. 이날 의료전도를 위해 수고하신 분은 의사 6명, 약사 3명 간호원 3명등으로서 여천교회 집사님들과 본교회 제3남전도회 임원들이 함께 협조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의료전도단 의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다.

△치과:엄 필성장로, 박 남수 집사 △산부인과:손 철집사 △정형외과:김 종희선생(타교회), △내과:조 혜영선생(타교회), △한방과:우 기전장로 △약사:이 감재집사, 김 상덕집사, 정 인선선생, △간호원:김 정미선생, 김은숙선생, 이 세순선생(총12명)이다.



김주경 선교사 이스라엘 파송

직장전도교육부 개교 8주년 기념 산돌잔치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30분~12시까지 교육관 414호실에서 열렸다. 산업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회원들과 이들은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은 이날 한테 어울려 주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나누었다.

교역자 동정

선교지 답사 및 성지순례

본 교회 김 원남 목사 (전도위원장)와 유 국남 목사 (충현세계선교회)등 세 교역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및 예루살렘 선교지 답사를 위하여 7월 2일 오전11시30분 김포를 떠났다. 특히 이번 여행은 충현세계선교회로는 성지연구소 설립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답사여행이 된다. 귀국 예정일은 7월29일.

서 만수 선교사 일시 귀국
인도네시아 주재 서 만수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6월 5일 일시 귀국하여 10일 주일 3부예배에 「스테반 집사를 본받자」라는 힘있는 설교로 성도들의 선교의식을 고취시켰다. 13일에는 고향에서 모친상 1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셨으며 16일 입지로 떠나셨다.

김 재창 선교사(파라과이 주재) 박 상희 사모일시 귀국 6월 5일 귀국 7월중순경 출국할 예정임.

강도사 시험 합격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본교회 윤용규, 김주경, 김익경, 김오용, 장병기 전도사가 합격함.

지난 6월27일(수) 저녁예배시에 본교회당에서는 총회 선교부 주관하에 예루살렘 주재 김 주경 선교사의 현지파송예배를 드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지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이 진행될 터인데 이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따른 것으로 성경연구소와 선교 및 전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김선교사의 가족은 7월 2일(월) 오전 11시30분 이스라엘로 떠났다.



제4 회 북한선교전도대 하기훈련 예정

북한선교전도대 하기훈련이 7월 23일부터 28일(5박6일)까지 북한선교원 주최로 정신훈련원에서 실시된다.

접수는 충현교회내 북한선교원에서 7월15일까지 받는다.

목회자 경건훈련 실시

북한선교훈련원에서는 제2차 목회자 경건훈련과 목회 내조자 경건훈련을 지난 11~15일과 6

월25일~29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였다.

육사생도 훈련 실시

북한선교위원회에서는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육사생도들을 대상으로 사관생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의 목적은 앞으로 장교로 임관되는 사관생도를 복음으로 훈련시킴으로서 전군신자운동에 활력소를 불어 넣는데 있었다

이번 훈련의 강사로는 김 창인 목사, 조 준상목사 외 세분이 수고하셨다.



윤용규



김익경



김오용



장병기

청년부 지도자 훈련 을 마치다

청년부에서는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 부서내의반장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5월28일~6월2일 사이에 청년부실에서 초급 L. T. C. (Leadership Training Course) 강의를 받았다. 모두 31명의 남녀 청년들이 참가하여 청지기론 성경해석학 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상담 개인전도 등에 관하여 배웠다.

교회직원 인사 이동

김성주 강도사가 충현세계선교회로 옮김에 따라 기도원 부지대로 유창부 전도사를 발령함, 사무국에 서봉순, 기획조정실에 함은경 발령

교회

○○○집사가 기증한 정원수 250수를 교육관 앞뜰에 식수함.

대심방진행현황

교구	구역수	심방한구역
1	77	53
2	79	48
3	68	47
4	54	37
5	47	47
6	79	52
7	81	59
8	71	51
9	79	56
10	86	95
계	761	545

각 종 통 계

1984. 6. 24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낮	1 부	230	540	770	총 세대수	4,881	
		2 부	740	1,520	2,260			
		3 부	590	1,140	1,730			
		4 부	350	920	1,270			
		소계	1,910	4,120	6,030			
배	주 일 저 녀	290	510	800	교 인	남	4,628	
	삼 일 저 녀	230	430	660		여	6,128	
주 일 학	영 아 부	242	206	448	총 수	계	10,756	
	유 치 부	184	204	388				
	유 년 부	169	176	345	세 려	남	2,680	
	초 등 부	169	184	353		여	3,939	
	소 년 부	217	200	417	입 교	계	6,619	
	중 등 부	225	221	446				
	고 등 부	129	150	279	유 아	남	572	
	대 학 부	87	81	168		여	468	
	청 년 부	62	89	151	세 려	계	1,040	
	중 년 부	18	59	77				
	장 년 부	46	272	318	학 습	남	328	
	소 망 부	46	140	186		여	480	
	교	직 상 전 도 교 육 부	25	107	132	교 인	계	808
새 가 장 부		14	37	51				
장 년 새 신 자 부		61	138	199	원 입	남	1,193	
세 려 부		26	53	79		여	1,590	
합 계		4,150	7,377	11,527	교 인	계	2,783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10시 20분
-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 주, 월, 수요일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 기도원출발: 오전 5시 30분, 오후 4시(주일제외)

• 차량운행코스: 충현교회→잠실대거리→송파→성남모란시장(시외버스정류장)→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광주에서 이천방면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1310 - 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0347 - 2 - 4425

5 월의 교우동정

• 새교우

김재윤 문성진

5 교구 김필너

1 교구

김태전	이규숙	김의덕	임승택
김온순	윤명숙	정진옥	이종범
임태중	김선진	하영순	공귀님
이백용	구명희	이정례	오매실
박화순	정진옥	자동준	유남순
양재원	안분동	신경자	김옥자
박용숙	이양희	강대천	민경진
이정심	도순복	김준기	문남수
정순희	이준복	임남주	이명규
정수임	김건희	박계너	김성옥
김내호	양준영	이종택	노수태
강근식	이창근	박미순	손옥자
김정명	임영숙	윤석민	김혜숙
임동근	조유리	권태은	윤수원
강재용	정종백	노옥례	김혜정
정제환	신현숙	강연근	김옥채
남이현	박효자		

2 교구

조광호	김재형	김건정	고인환
이강우	이정남	하순심	이장순
장소영	계정민	황계숙	장순옥
박찬호	임영운	정완도	오경순

3 교구

류경미	박광정	조춘성	김춘곤
이수현	우상순	이석구	허문선

4 교구

6 교구

김재임	장주봉	권성희	김희분
고수석	최석주	박희창	

7 교구

정재완	민인기	윤현숙	김분례
한신복	문충훈	안정선	이동재
임영규	이남영	최승지	기은경

8 교구

송경진	임의식	김경원	김성주
김형곤	박병필	오덕필	이정숙
장석균	한민경	김순은	이광자
최종원	이희우		

9 교구

김말봉	정금선	정석호	이장희
김철성	이봉순	안필운	

10교구

정경자	김희숙	장운정	이정옥
김석호	박순규	강봉순	최정순
홍순남	윤도옥	문세정	이종관
박병희	윤석민	정영희	남혜숙
이은애	김진숙	박태영	이명수
윤장수	이희우		

• 결혼

- 권영훈군과 박정윤양 5월 5일 본교회당
- 박원희군과 유추남양 5월 5일 기독교방송회관
- 신흥섭군과 이오녀양 장충단성결교회
- 이의용군과 김명화양 5월 8일 본교회당
- 문상무군과 김영란양 5월 8일 상동감리교회당
- 이경호군과 이은희양 5월 14일 본교회당
- 지성규군과 유순희양 5월 15일 본교회당
- 김산석군과 임종란양 5월 19일 이문동동안교회
- 천현근군과 오광순양 5월 19일 본교회당
- 조정현군과 임전옥양 5월 26일 수은회관
- 정태경군과 유기정양 5월 26일 감리중앙교회

• 별세

- 주창옥씨 (봉천 1구역) 26일 별세
- 박종범씨 (장안 1구역) 10일 별세

7 월의 행사

□ 예배위원회

17일 / 맥추절

□ 제직회

1 일 / 제직회

□ 기획조정실

29일 / 월간총현발행

□ 구역권찰회

6, 7 일 / 구역권찰회훈련

□ 전도위원회

19 일 / 사회사업가 초청세미나

□ 북한선교위원회

6 월30일~ 2 일 사관생도훈련

23일~28일/하기훈련 (강원도 정선)

□ 교육위원회

7 월23~25일/고등부 수양회

7 월23~26일/유치·유녀·초등·소년부 하기학교

7 월30일~ 8 월 2 일/중등부 수련회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정지된 교회이다. 교회성장의 중요요소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런 뜻에서 총현교회는 매년 교회 성장세 마나를 개최하고 있고 박윤선 목사의 지도자의 영적자질, 정원태 목사의 성장하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이번 호에 게재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

한다.

새성전시대를 열고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총현교회 위에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채우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해 보는 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표지의 글

새성전으로 이사온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참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온 교인이 함께 전력하여야겠다.

그러나 올바른 성장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않는다.

오늘날 말씀이 부재한 시대는 영빈공과 타락을 낳고 말씀이 없는 외적성장은 무질서와 두려움을 잉태한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장 정 인 조 현 명
김 수 성 이 형 수

월간 총현

1984년 6월호

제12권 5호 (통권121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6월 28일 인쇄

198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최 석 주

주 간 / 이 성 근

홍보출판부장 / 김 광 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 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65-1

전화 / 562-4181~5

□ 사진으로 보는 뉴스 □



⇒ 대학생 초청 전도집회 축도하시는
강사 신성증 목사 (1984. 5. 28)

어린이 초청잔치 기간 중 교사들이
울동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 ⇒
(1984. 6. 7)



김재창 선교사 (파라과이 주재) 아순
시온 교회의 84년도 성례식 (4월)
⇒

나성중현교회 정 상우목사 부임 ⇒
기념촬영 여제직회 (1984. 4월)



□ 포토에세이 □

사람에겐 사람이,
친구에겐 친구가 필요해.
충실한 삶이란 광대한 그늘하

우렁찬 갈래 아니라 손에 넣은 성공
세상의 명성 아니라 하나님 우릴
사랑하시어 자카이 품어 주시고
생각과 지도로 향여 주심.
깨달아 아는 데 있기에
우릴 모두 사랑 필요해.

우리 마음 헤아리는 이,
어린가 인음을 안다면
하루의 삶 그치없이
나사롭게 느껴지나

우리의 기쁨과 슬픔
연연히 함께 나누기를
말장하여 외로운 마음과 정신일체
한 땀줄로 흐르는 땀을
터들여 향여 한껏 내면 손길을
미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문 닫지 마오면"
우릴 가장 절실한 삶을 스스로
배우고 마는 것.

타 이루어 풍성한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멋들과
지닐 것 함께 마는 때

모든 자카이
타가요 지에.
우릴 누군가 필요해.